

등록번호	주차관리과-32347
등록일자	2015.10.29.
결재일자	2015.11.2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주차시설팀장	★주차관리과장	안전건설국장
주기종	임영래	류용걸	전결 11/02 백기운
협조	신당제5동장 사회복지과장	정옥미 김화전	

##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건립(안) 제4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



**안전건설국  
주차관리과**

## 서울의 관심 중구 다산어린이공원 주차장건립(안) 제4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

### 1 주민설명회 개요

- 일 시 : 2015.10.23.(금) 16:00
- 장 소 : 신당5동 주민센터 3층 강당
- 참석자 :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직능단체 및 인근주민 약50명  
※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 등
- 내 용 :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(안), 진출입 위치도 등
- 주요참석내빈 : 정수복(마을금고 이사장), 이준구(주민자치위원장), 김명식(백합상가번영회회장)  
※ 주차관리과, 사회복지과, 공원녹지과, 동화동 직원 12명 배석

#### 〈 추진경위 〉

- 2014.11. 6.: 1차 주민설명회 개최(대상 : 주민자치위원회 14명)
- 2014.11.20.: 2차 주민설명회 개최(대상 : 통장 20명)
- 2015. 5.28.: 3차 주민설명회 개최(대상 : 인근 거주민 약60명)  
※ 지하주차장 공사반대 서명부 제출(주민일동 644명)

### 2 설명회 현장 분위기

- 다산공원 주차장 결사반대 피켓(3개)를 들고 참석한 주민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순차적으로 원활한 주민의견을 청취함
- 주차장 건립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이 모두 참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였지만,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의 주장이 더 발언권이 강하게 전달됨

### 3 주관부서 의견

-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,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다산어린이 공원 내 지하주차장 검토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,
- 공원 지하주차장 반대 서명부(644명) 제출 및 찬·반의견이 있었으나, 다수가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표출되었고, 신당5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,
- **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향후 주변여건에 따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**

#### 〈 신당5동장 의견(2015.10.26.)〉

- 대부분 반대 주민들을 의식하여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는 반면, 공원 주변 주민들은 적극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**계속해서 주차장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**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

### 4 주민설명회 현장사진



#### 〈구청장 지시사항(2015.10.29.)〉

-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주변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
- 경로당(복지관) 통합은 별도 추진

### 【첨부】 - 주민의견 내용

- 2012년부터 주차장 건립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으며, 신당5동 미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부탁함. 지하주차장만 고집하지 말고, 신당사거리 및 신당역 주차장을 매각하여 다른 곳에 주차장 건립 고려 **【이준구 자치위원장】**
- 목정공원에 방문했지만 매연과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노숙자 등만 이용하고 있음. 주민설명회를 계속 하지 말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 바람. 주차장이 있어도 불법주차는 여전할 것이며, 신당사거리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건립하기 바람 **【주민의견1】**
- 신당동122-6번지에 30년 전에 입주하여 살고 있음. 어느날 갑자기 살고 있는 가게에 주차장과 노인복지관이 건립 된다고 하니 너무 황당함을 느낌. 입장바꿔 생각해 보고, 목이 매어 더 이상 말을 못하겠음. **【주민의견2】**
-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 이용하기 어려움. 매연은 그리 많지 않고, 지역발전을 위해 주차장이 필요함. 신당5동에 유치해야 함 **【김명식 전 자치위원】**
- 다산어린이공원은 신당5동, 동화동, 황학동 주민을 위한 공원이며, 힐링 공간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게 놀 수 있는 유일한 공원임. 목정어린이 공원은 어린이가 1명도 없음. 주차장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며, 노인과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**【주민의견4】**

- 신당5동 인근에는 다산어린이공원이 1개 밖에 없음. 주차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임. 주차장은 차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원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차가 없는 사람을 배려해 주기 바람. **【주민의견5】**
  
- 2003년 6월 다산어린이공원을 처음 조성, 지금은 신당5동, 6동, 황학동 등 2만 3천여명이 이용하는 공원임. 다산어린이공원은 37가구를 철거해 약1,100평의 부지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, 사방이 주택지역으로 지하주차장이 건립될 경우 차량출입구로 인해 공원이 훼손되며, 환기구에서 정화가 안 된 매연이 환기되어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음  
**【정수복 마을금고이사장】**
  
- 신당동에는 제대로 된 공원이 없으며, 주민 이용이 가장 많고, 문화행사, 무대시설, 분수대, 화장실 등 시설이 양호한 다산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임 **【정수복 마을금고이사장】**
  
- 동네에 다산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축복함. 봄,여름,가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족, 어르신,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주차장을 다른곳으로 만들어 주기 바람 **【주민의견6】**
  
- 설명회 인지 공청회인지 모르겠음. 이미 반대를 했는데 왜 자꾸 설명회를 하는 것인지? **【주민의견7】**